

## 대화로의 환영

미시건 디트로이트에서 올 해 총대들이 온 교회를 대표해서 모이는 221 차 대화의 시간에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대화의 시간은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이 대화의 시간은 몇 명의 사람들이 첫 번째 노회를 만들기 위해 모였던 1706 년에 시작되었고, 새로이 형성된 총회가 1789 년에 처음으로 모였을 때 활기를 띄게 되었다.

이 대화의 시간은 때로 가열되기도 했다. 열정과 진심어린 불 일치들로 가득 차기도 했다. 이 대화는 또한 50 개 주에 산재해 있는 교회를 탄생케 하여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게 하였다. 이 대화를 통해 학교들과 대학과 병원과 커뮤니티 센터들이 생겨났다.

대화는 우리 교회를 넘어 커다란 에큐메니컬 운동을 형성하기 위해 다른 교단들과 연결되게 했다. 종종 정의가 대화의 핵심이었다. 1789 년부터 지금까지, 대화는 하나님 나라와 같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교회에 추진력을 가해 주었다.

1967 년 신앙 고백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교회는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인류를 위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세례를 베풀고 주의 만찬에 참여하며, 예배하면서 세상을 위해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 아뢰고, 교제를 즐기고, 지시와 힘과 위안을 받고, 그 자체의 단체 생활을 정하고 조직하며, 시험을 받고 새로워지고 개혁되고, 시대의 요구를 따라 적합하게 세상의 사건들에 대해 발언하며 행동한다 (신앙 고백서, 9.36).

이것은 우리가 바빠질 것이라는 소리처럼 들린다. 우리는 처리해야 할 일들이 많기 때문에 바빠질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러 굶주린 자들을 먹이고, 헐벗은 자들에게 옷을 입혀주며, 갇힌 자들을 방문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엄청난 복음을 전하라 하신다. 우리는 우리의 역할과 열정과 목적을 분별할 필요가 있다.

당신이 대화에 참가할 것이 있는가?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소망을 나눌 때 당신은 경청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당신은 억압 받는 자들을 대신하여 그들의 소리를 높여 줄 것인가?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에게는 토론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대화의 장을 열어 봅시다.